

## SG, 인천조달청과 약 145억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 2021년 상반기 수도권에 아스콘 물량 약 25만 2,000톤 납품

<2021-01-20> 아스콘·레미콘 제조기업 SG(대표이사 박창호)가 인천조달청과 약 145억 원 규모의 아스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 에스지이(SG, 255220)는 올해 상반기 아스콘 물량 약 25만 2,000톤을 수도권에 납품하게 된다.

에스지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부양책인 SOC(사회간접자본) 수혜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올해 SOC 예산인 약 26조 원 중에 30%가량이 도로 사용으로 계획돼있어 올해 하반기에도 대규모 아스콘 물량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건설 신기술로 추진 중인 에코스틸아스콘(EcoSteelAscon)의 상용화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SG는 수도권 지역에 아스콘 납품 물량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SG가 개발한 에코스틸아스콘은 강한 제강 슬래그를 천연 골재 대신 사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성능을 향상시킨 친환경 기술로 ▲고강도 ▲저소음 ▲내구성 ▲경제성을 자랑한다. 일반 아스콘 대비 약 1.5배 높은 강도는 물론, 평균 수명(2년)보다 약 2배 높은 4년의 수명을 지니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